

[기획]

5·31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光州日報·KBC 공동 주최

“일자리 창출... 잘사는 전남 만들겠다” 한목소리

광주일보와 KBC는 9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동안 열린우리당 서범석, 한나라당 박재순, 민주당 박준영, 민노당 박용두 등 4명의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오경환 KBC 보도국장이 사회를 맡아 모두발언, 공토질문 및 응답,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J프로젝트·농업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내놴.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이 어려워졌다. 친환경 농산물로 소득을 높여야 한다. 특히 비싸게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가공이 중요하다. 각 시·군에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

▲서범석=수입개방으로 이득 얻는 제조업체에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1차 산업인 농업을 대학의 연구기술 활용, 지식에 기초한 2차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박재순=우리와 같은 상황을 가진 나라와 공존하는 농업협상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유통·가공 분야에 더욱 집중 투자해야 한다.

▲박용두=전남은 통일을 대비한 식량 생산기지다. 전남을 농업수도로 만들어야 한



서범석 후보, 박재순 후보, 박준영 후보, 박용두 후보



광주일보와 KBC가 공동 주최한 5·31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토론회가 9일 오후 KBC 4층 공개홀에서 열렸다. /위키투스기자 jrw@kwangju.co.kr

전남도지사 후보 3대공약 및 실행계획 비교

Table with 3 columns: Candidate Name, 3 Major Promises, and Implementation Plan. Rows include Seobum-seok, Park Jaesun, Park Junyoung, and Park Yongdu.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바닷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초고령사회 대책은.

▲박재순=독거노인에게 응급구조호출기 지급하겠다.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6개 권역에 대형 복지타운을 건설, 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범석=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복지카드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강과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충하겠다.

▲박준영=대부분 대책이 진행 중이지만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노인들이

비 확보다. 국비 확보는 전남이 힘을 결집하고 행정가가 정부·국회를 발로 뛰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 담당자의 이야기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한다. 또 현재 친환경 농업도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더라. 친환경 농산물은 선진국도 3% 수준만 생산한다. 그런데 30%를 목표로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

▲서범석=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전남 이전 기업에 30년간 공장부지를 무상임대하겠다. 여수해양엑스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전남을 교육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전도민 평생학습체제를 추진하고 도예산 5%인 1천500억원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겠다.

▲박준영=일자리 만드는 것과 교육문제 등 농업 발전에 대한 생각은 같다. 하지만 고민 중 하나는 예산이다. 1천500억원 예산 확보는 어렵다.

▲박재순=농어촌활성화 대책으로 농업 시설과 농기계를 장기저가로 임대하는 제도

서범석 이전기업에 30년 부지 무상 임대
박재순 농기계 등 장기 저가임대제 도입
박준영 전지역 1시간권 고속교통망 확충
박용두 친환경 미래산업 '농업수도' 건설

지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용두=몸이 아픈 어르신은 언제든지 병원에 가도록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노인회관을 복지센터로 만들고 독거노인과 동네 젊은이 지매결연을 맺도록 하겠다.

◇상호토론

▲박준영=SOC가 절대 부족하다. 이것이 기업 및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전남 어디든지 한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겠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은 건설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광주~고흥 고속도로도 건설된다. 해상SOC 확충도 중요하다.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농민이 함께 잘 되도록 삼농정책을 펴겠다.

를 도입하겠다. 또 도시민 회귀촌을 조성하겠다. 권역별로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곳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생각이다.

▲박용두=콤바인과 시설하우스는 내구연한이 짧아 장기 임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특수농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실버타운 조성 방안은 현재 노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다. ▲박용두=농업문제 특히 유통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한다.

▲박재순=농어촌기금을 17년 동안 조성해 1천억원 돌파했다. 그런데 긴급구제와 직불제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모두 발언
▲박준영=그동안 광주 근교권은 광주의 우수 인력을 이용, 첨단산업에 집중하고 서부권은 해양레저물류기지로 만드는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해왔다. 이제 또 도민들이 저에게 믿음을 주면 이런 계획을 차분히 추진, 완성할 것이다.

▲박용두=한미 FTA가 체결되면 더욱 고통은 커질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 사는 전남은 물거품

이 된다. 민노당 후보만이 한미 FTA를 막아낼 수 있다.

▲박재순=전남은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가 있다. 이는 필요한 시대에 비전있는 행정가가 도정을 맡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서 40여년 동안 행정을 해 전남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서범석=전남이 위기를 맞은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도정과 리더십 부족 때문이다. 또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당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제 지방의 부패독재를 끝내자. 전남을 희망이 넘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

◇공토질문
▲사회=농촌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밝혀달라.
▲박준영=쌀 수입 개방 등으로 농촌 상황

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기금을 1천억원 이상 조정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한 기금도 신설해야 한다.

▲사회=서남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박재순=30조원 이상의 투자자금 조달이 문제다. 또 무안공항, 고속도로, 연도교 건설 등 SOC 건설이 필수적이다.
▲박준영=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꼭 성공시켜야 한다. 지금은 최종 용역단계다. SOC 건설이 중요하다. 투자자금 문제는 많은 진전이 있다.

▲서범석=능력있는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성공이 가능하다. 카지노, F1경기장 등 민감한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박용두=J프로젝트는 반환경적 개발사업이다. 환경적 사업이다. 또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도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따라서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Specialized School'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details on cours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Munjeong High School' (무등고시학원) for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hakwon' (광주고시학원) for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highlighting a 96.7% success rate.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Specialized School'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contact details and course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yeongnam University Entrance Exam' (김영대학면입학원) for exam preparation.